

문화광장



김미란  
공연기획자·문화예술학박사

문화예술 지원의 위기: 제주도의 예산 삭감과 그 영향

2024년 제주도 문화예술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이러한 예산 감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심각성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화예술 예산 삭감은 예술가와 문화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예술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와 독립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가들과 문화기관은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

원이 줄어들게 되면 예술가들은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져 창작활동의 제약을 받고 새로운 예술작품의 창작이나 예술적 실험의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예술의 다양성과 혁신성이 훼손된다. 그리고 문화예술 기관의 예산 감소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축소돼 지역사회의 문화적 활동이 저하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에 노출될 기회 또한 감소한다.

또한, 문화예술은 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화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은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나 지원이 감소하면 예술가들과 예술 단체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문화 산업 전체로 이어

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예산 감축은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술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원이 축소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예술 형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 예산 감축은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예산이 축소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예술 프로젝트나 문화 활동들이 한 정돼 특정한 예술 형태나 문화적 관점이 우세해질 수 있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져 다양한 인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회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은 우리의

정신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화예술은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우리의 감정과 가치를 공유하고 전달한다. 그러나 지원이 감소하면 문화예술 행사나 풍부한 예술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연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는 사회적 고립과 갈등 증가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예산 배분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문화기관의 역할은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

제주의 새로운 활로 찾는 데 분투해야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푸른색의 ‘갑’과 웅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하는 ‘푸른 용의 해’로 불린다. 청룡은 용맹함과 지혜, 번영 등을 상징하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 도전과 변화의 시기가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비상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기대가 컸던 2023년은 기대와 달리 힘든 한 해였다. 그런데 올해는 더딘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더욱 어려운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팽배한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유일했던 특별자치도는 세종, 강원, 전북이 합류하면서 ‘조화’와 ‘경쟁’의 시대로 변모했다. 자력갱생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제주도정은 올해를 ‘가슴 뛰는 혁신의 해’로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했다.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둘씩 성

과를 거둬야 한다.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지역 경제의 힘 있는 도약은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도전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1차 산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 빛나는 제주, 번영의 제주를 이룰겠다고 강조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9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통해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는지 모른다. 중앙정부 못지않게 국회의 역할을 알기에 도민들의 관심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선택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주저하면 후퇴할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독립하는 수준의 노력으로 번영을 향해 씬 없이 나아가야 한다. 도전과 변화의 시기에 제주의 활로를 찾는 데 허송세월은 안 될 것이다. 도정은 도민들의 신뢰 속에 용맹함과 지혜를 바탕으로 번영을 위해 분투노력해야 한다.

열린마당

제주4·3희생자 4차 보상을 시작하며



고미숙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갑진년(甲辰年) 새해 1월부터 4·3희생자의 4차 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대상은 2662명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전 가제도 조사를 통해 파악된 상속권자수는 2만9000여 명으로 희생자수의 11배에 달한다.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1차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고 벌써 1년 반

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전례없던 국가 차원의 대규모 보상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됐고 민원 문의가 폭주하기도 했지만, 어느덧 보상금 신청의 반환점을 넘어가고 있다.

75년이라는 기간 동안 억울함과 비통함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던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라도 지급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공직자라면 한마음 한뜻일 것이다.

또한 4·3으로 인해 희생자의 자녀로 호적에 오르지 못한 자식들의 친생자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정정 신청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당한 상속권 회복을 기대해 본다.

보상금 신청은 행정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과 읍면동별 4·3업무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도외와 해외거주자의 경우 제주도청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뉴스-in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감염취약계층 지원은 유지

“오늘 우당도서관 재개관”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1일부터 도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13개소(의료기관 7·보건소 6)의 운영을 중단.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1441일 동안 도민·관광객 등 진단검사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중 무휴로 운영됐으며, 코로나19 초기 확산 방지와 도민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앞으로 진단검사는 일반 의료기관 198개소에서 진행하게 된다”며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등의 지원은 유지한다”고 점언.

○…올해 개관 40주년을 맞는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지난 8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과 개방형 독서공간을 마련하고 2일 재개관할 예정.

시는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도서관 1층 수직정원 내에 서가를 설치했고, 2층에는 자료실을 문학과 역사 자료실별로 분리했으며, 3층에는 제주향토자료와 정보누리터로 구성.

김현아 관장은 “제3·4자료실에는 제주문화를 알리기 위한 제주 관련 도서와 제주의 특색을 살린 공간을 마련했다”며 “도서관 3·4자료실에는 벽체형 소파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언급.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김상언(前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아버지 김해김공 행환(향년 92세)께서 서기 2023년 12월 31일 별세하셨습니다.

- ▶일 포: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발인일시: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국립제주호국원

아들 김상언 며느리 고인정  
딸 김혜자 사위 김진선  
    혜정 김물시  
    혜진 오정식  
    혜선 김익수  
    지선 전용구  
    희선

※ 연락처 : 김상언 010-5306-6061  
김혜자 010-5180-654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여산송씨 화순(봉여·향년 7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1월 2일

남편 백정수(송씨)  
아들 백상훈      며느리 정세라  
    상우      오주연  
딸 백지연      사위 양영철  
    경미      손홍배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파평윤공 호철(前 제주특별자치도청 사무관·향년 9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1월 2일

부인 이복희  
아들 윤임석      며느리 김영심  
    보석      강진경  
    이석      현경화  
딸 윤미정      사위 오승룡

해산 및 채권신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12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 1. 2.

농협하법인 티제이농업글로벌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94  
청산인 이상목

태양광발전사업 의견 수렴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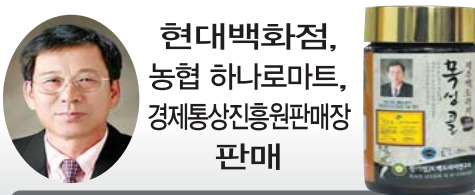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제일테크1호,2호발전소
- 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수암리 산56번지
- 발전소의 면적 : 17,305m<sup>2</sup>
-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 용량 : 1호 994.4KW, 2호 994.4KW
  - 사업개시 예정일 : 2024년 10월
  - 사업 운영 기간 : 25년
-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 김정희외1인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01월02일 ~ 2024년 01월 08일(7일간)
- 의견제출 방법 : 전화 064.721.5381, FAX 064.721.5382 E-mail : jejutomok@hanmail.net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3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바꾼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어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안에 가능합니다.”

-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어드립니다
-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겠는 경우
-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어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양계장용 황칠 발효액

- 濟大수의학과출 70대 수의사(김상홍) 개발중
- ① 사용량에 따라 약취를 90%이상 동화시켜 주위환경 오염 방지
  - ② 지방축적 감소
  - ③ 소화흡수를 증가로 약30% 사료절감
  - ④ 폐사를 감소 및 면역력 증가
- 토종닭 6개월간 시험 완료

신관계 양계장 무료 임상시험 약 6개월간 지원  
자체 임상시험 결과 개월이상 산란율 배름

황칠재배농장 제주도 보배길 32-16

문의 전화 064-725-0622  
010-5169-452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